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 하나님과 나 성령을 꼭 붙잡고 의지해라. 철과 철이 용접하여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나 성령과 완전하게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2. 주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증거하니,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시켜 준 자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니라.
3. 성령님은 주와 일체 되어 살아가 주시나니, 주를 증거해 주어 모두 그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 접붙여 살게 해야 되기 때문이니라.
4. 주의 삶은 성령과 일체 된 생활의 삶이니라. 특별한 때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생활의 일체를 이룬 삶이니라.
5. 주는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느니라. 주는 성령의 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나니,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성령님과 일체 되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6.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 일체 되어 한 몸같이 살아가신다. 주는 삼위와 일체 되어 한 몸같이 살아간다. 이와 같이 주를 절대 믿고 따르고 구원받고 사는 자들도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살다가, 그 영도 그 나라에 속한 영이 되어 가게 되느니라.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하나 된 자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나니, 항상 그 행하심이 눈에 보이고, 그 말이 들리느니라.
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의 삶은 삼위와 주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이니라.
9. 타락으로 인해,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랑이 죽은 자는 다시 처음 사랑의 복직을 해야 살게 되느니라.
1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녕코 사랑의 뜻을 행하고 이루셨다. 우리가 그 천 년 역사의 행하심에 참여하여 사는 자가 되었나니, 삼위 앞에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살지어다.
11. 매일, 매시간 삼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이 육신이 땅에서 황금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니라.
12. 죽은 옛 행실과 삶들을 깨끗이 장사지내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땅에서 황금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니라.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대화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글을 쓰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전해 주고 행하게 하는 삶이 황금천국을 이루게 하는 삶이니라.